



용어 사전 | API



여러분이 파스타 전문점에 들어가서 ‘알리오 올리오’ 메뉴를 주문한다고 생각해봅시다.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? ‘주방’이나 그 식당의 ‘냉장고 현황’ 등을 고려하나요? 아니면 ‘알리오 올리오’에 사용할 마늘의 품종을 선택하여 주문하나요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그냥 ‘알리오올리오 1개 주문하겠습니다’라고 이야기하면 끝이죠.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‘식당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규칙’이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삶에서 통용되는 식당 규칙에는 이런 것이 있겠네요.

• 메뉴 시키기

- 메뉴판에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를 종업원에게 주문한다.
- 주방에서 주문받은 메뉴를 조리하여 종업원에게 준다.
- 종업원이 완성된 메뉴를 테이블로 가져다준다.

API도 이와 비슷합니다. 약속된 규칙 안에서 요청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다주죠. 흔히 공공 데이터, 오픈 API라고 부르는 것이 그 예 중 하나입니다. 여러분이 생필품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, 생필품 가격 정보를 조사하려 다닐 필요 없이 누군가 이미 조사한 오픈 API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죠. 다만 약속된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요청해야 합니다.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무언의 약속을 지키며 주문하는 것처럼요. 메뉴 시키기에 대응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.

• 생필품 가격 정보 받기

- 오픈 API 사이트에서 데이터 요청 방식을 보고, 사이트에 데이터를 주문한다.
- 오픈 API 사이트에 연결된 생필품 데이터 서버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여 오픈 API 사이트에 보내준다.
- 오픈 API 사이트가 데이터를 나에게 가져다 준다.

